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 냉전의 재생산

정영철(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 들어가며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 무성한 가운데 미국에서의 북한 인식은 단지 학술적인 이해를 넘어 미국의 대북정책과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북한 인식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규정하에서 실증적 연구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북한의 이미지를 만들거나 조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

오공단(Oh, Kongdan)이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듯이, 북한의 이미지는 전체주의와 유교주의가 결합한 김일성 왕조(Kim's Dynasty)로 종합

1) 전체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Gleason, Abbott, *Totalitarianism: The Inner History of the Cold War*(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Ch.7. 전체주의 모델은 1960~1970년대에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나, 레이건-대처 시대의 신냉전 시기에 다시금 부활했고, 명백히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결합하여 확대 재생산되었다.

된다.²⁾ 또한, 아드리안 부조(Buzo, Adrian)의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은 전체주의의 동양판 모델인 왕조(Dynasty)일 뿐이다.³⁾ 사실, 북한 사회를 사회과학적 의미에서 전체주의로 분석한 이는 맥코맥(McCormack)이 거의 유일하다. 그는 북한 사회를 신전체주의(Neo-Totalitarianism)로 묘사하고, 고전적 전체주의에서도 일탈한 체제로 바라본다.⁴⁾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북한 이미지는 소련의 위성국가이거나, 절대권력의 전체주의 사회이거나 김일성·김정일 개인에 대한 개인숭배로 가득한 나라로 비춰져왔다. 사실, 이러한 북한 이미지는 과거 남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남한은 극도의 반공주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이거나 ‘탐욕스러운 늑대’ 혹은 ‘명청한 돼지’의 이미지로 북한을 묘사해 왔다. 이러한 북한 이미지의 생성은 극단적인 냉전적 대립 의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앞서의 북한 이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바뀌어 왔고 오늘날에는, 비록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둘러싼 대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흐름이 고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의 북한 연구자들의 경우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경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는 ‘냉전의 덩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이미지의 재생산과 오리엔탈리즘의

2) Oh, Kongdan and Hassig, Ralph C.,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Washington D.C: Brookings, 2002).

3) Buzo, Adrian, *The Guerilla Dynasty*(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9).

4) McCormack, Gavan, “Kim’s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198(March/April 1993).

사고 속에 북한을 위치 지우고 있다.⁵⁾ 이 결과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많은 서술들이 과거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고, 적대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 북한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의 경향과 북한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 이미지가 단순히 ‘오늘날’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과거로부터 지속된 냉전의 산물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에서 나온 글만이 아닌 영어권 학자들의 글까지 포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오늘날 서구에서의 북한 연구의 대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서구에서의 북한 연구’는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로 대표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⁶⁾

2.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 ‘냉전의 덩어리’

지난 50여 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 학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의 원인은 북한이 학문적 관심 대상으로서 별다른 흥미를 끌지도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이데올로기적 규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서도 이

5) 서구의 북한 인식을 오리엔탈리즘 비평을 통해 분석한 글로서는 구갑우, “북한 인식의 정치적 회로: 국제관계학의 오리엔탈리즘 비판,” 『정치비평』, 2003년 하반기호를 참조할 것.

6) 물론, 이 점에서도 이 글은 일정하게 한계를 가진다. 이 글이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어권 논문이나 저작들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글은 최대한의 일반론적인 시각과 우리에게 주로 알려진 글들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한다.

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성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연구의 관심과 수준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1990년대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된 연구 영역의 협소함, 혹은 정책 지향적인 연구로 인해 북한 사회의 역사, 구조, 현실에 대한 분석은 축소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채로 대북정책이 만들어지고, 몇 가지의 정보에 의존하여 북한 사회 전체를 평가하는 분석의 빈약함과 편향성만을 노정할 뿐이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북한 연구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더욱이 그러한 정보조차도 악의에 찬 감정에 지배되어 분석된다면, 그마저도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전 CIA 한국 지부장을 역임했고, 훗날 주한 미 대사를 지냈던 도널드 그레그조차도 “미국 첩보 역사에서 북한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실패 사례이다”라고 실토하기도 했다.⁷⁾ 사회주의·공산주의와의 대결 속에서 첨단 이론과 정보로 무장한 미국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실패는 곧 학술적 분석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학계에서 북한 연구는 초기 정부 기관에서의 연구가 주축을 이루었고, 그 내용도 북한의 권력 투쟁이나 위성국가로서의 북한 성격 등에 맞추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등장했고, 시각도 기존의 전체주의적 시각에서부터 수정주의적 시각 등으로 다양화되었다.⁸⁾ 또한, 이들의 연구성과가 남한에 소개되어 커다란

7) 팀 와이너 지음, 이경식 옮김, 『젯더미의 유산』(서울: 랜덤하우스, 2008), 6쪽.

8)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연구물로는 『서구 맑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서울: 중원문화, 1990), 『사회주의 북한』(서울: 지평, 1988: 원문은 1976년 발행) 등을 들 수 있다.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된 이후,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는 양적으로는 보다 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냉전 이후, 북한 연구의 중심이 학문적 영역으로서보다는 정책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당면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⁹⁾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의 인식론 및 분석방법론의 측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의 지금까지의 북한 연구는 적대감과 혐오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에버스타트(Eberstadt, Nicholas)를 들 수 있다. 특히, 에버스타트는 북한 인구학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북한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분석은 혐오감에 가득 차 있다.¹⁰⁾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헤이젤 스미스(Hazel Smith)가 말한 대로, 행위자로서 미쳤을(Mad) 뿐 아니라, 나쁜기도(Bad) 한 존재이다.¹¹⁾ 그러나 스미스가 지적한 것처럼, 미친 행위자와 나쁜 행위자는 양립할 수 없다. 즉,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미친 행위자는 합리적이지 못하지만, 나쁜 행위자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모순적인 자세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과거 냉전적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일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직접 충돌을 겨누고 전쟁을 치렀다는

9) 남한에서의 연구동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정책과 정세를 중심으로 북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공학적 연구’로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북한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2007년 겨울호.

10) Eberstadt, Nicholas & Banister, Judith, *Population of North Korea*(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Eberstadt, “The Old North,” *The World & I*, Vol.15(2000).

11) Smith, Hazel, “Bad, mad, sad and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76, 1(2002).

역사적 감정이 남아있는 것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이해관계에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안보 패러다임(security paradigm)’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²⁾

둘째로, 북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빈약한 자료와 과잉화된 이론적 규정을 앞세우고 있다. 미국의 학계는 소련 및 중국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이론적 축적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냉전의 시기에 이러한 미국 학계의 연구는 소련 및 사회주의 진영과의 이론적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최근 북한 연구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한 여과 없는 자료 인용, 신문과 잡지의 보도에 의존하는 빈약한 자료, 2차 자료에의 과대한 의존 등으로 특징지어진다.¹³⁾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 한마디에 미국 전체가 분노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정보는 더 이상 정책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닌, 그것을 승인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¹⁴⁾ 탈북자의 증언이 엄밀한 검증을 거쳐 학술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12) Smith, Ibid.

13) 최근 탈북자(Defectors)들의 증언이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증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있는 그대로 인용하거나,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일부 탈북자들의 반발까지도 사고 있다. 미 국무부의 『2004 종교보고서』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독교인에 대한 생체실험 등에 대한 믿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인용하고 있다(U.S Dept. of Stat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04*, released on Sept. 15, 2004). 그러나 이러한 증언에 대해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미국이 일부 탈북자들의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남한에서도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지만, 학문적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14) 글린 포드, 윤동구 옮김, 『벼랑 끝에 선 북한』(서울: 한얼미디어, 2009), 56쪽.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다른 한편, 북한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원자료들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게 관찰된다. 이는 지역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1차 자료(원자료)를 참조하지 않고 연구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곳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1차 자료의 빈곤을 이론의 관찰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잉화된 이론적 규정은 전체주의, 유교주의, 전체주의 등의 개념을 북한 사회의 역사와 구조의 맥락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사용하기보다는 선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보다 더 멀어지고 있다. 이는 ‘이론의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편파적 수집과 이론에 적합한 정보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¹⁵⁾ 그러나 정보가 분석을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적대감과 혐오감의 대상에 대해 이론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는 ‘북한적 현상’에 대한 철학적·역사적·구조적 분석이 아니라, 정형화된 이론과 그에 따른 선형적 규정이 지배적이다. 암스트롱(Amstrong, Charles K.)이 밝히고 있듯이, “해당 사회에 대한 연구자는 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¹⁶⁾ 그러나 타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관찰만 존재할 뿐, 전체로서의

15) 수많은 북한 체험을 담은 기록들에 대한 인용이 이것을 증명한다. 헬렌 루이즈 헌터(Helen-Louise Hunter)에게서는 미국식 가치관에서 이해되지 못할 기록과 탈북자의 편파적 증언만이 그리고 오공단에게서는 주관적 판단만이 가치를 가진다. 브루스 커밍스에게서 드러난 강철환의 사례는 그의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수용소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공동체로의 복귀라는 ‘사실(facts)’이 중요하게 관찰된다. 대조적인 모습이다.

16) Armstrong, Charles K., “An Interview with Gari Ledyard,”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6, No.1(2003), pp.143~185.

북한에 대한 개념은 빈약한 것이 오늘날 미국 학계의 북한 연구의 실상이라고 평가된다.¹⁷⁾ 그리고 이 결과 북한에 대해 이미 내려진 선험적 현상들을 통해 북한 전체를 규정하고자 한다. 여전히 냉전의 틀 안에서 인식되는 북한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3. 미국의 북한 ‘이미지’¹⁸⁾

1) 위성국가

아드리안 부조는 그의 책에서 스탈린 체제와 북한 체제의 비교를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의 국가적 행위의 중요 영역 — 대표적으로 정치, 리더십, 이데올로기, 경제 그리고 사회 동원 등 — 에 대해 스탈린주의의 청사진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¹⁹⁾ 즉, 그에게 북한은 스탈린주의(체제)라는 기준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²⁰⁾ 여기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이미지는 스

17) 이와 관련해 북한과 영국의 수교 및 평양에 외교 공관 설치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북한을 느꼈던 영국 외교관의 증언은 참고할 만하다. 즉, 그는 북한이 1948년 수립되었을 때, 외부의 관찰자들은 이 국가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문화적 뿌리를 갖지 못한 외부에서 이식된 체제라고 믿었고, 결과적으로 곧 사망할 것이라고 인식했지만, 결과는 최근의 몇 가지 곤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J. E. Hoare & Susan Parse, *North Korea in the 21st Century*(Folkestone, UK: Global Oriental Ltd., 2005), p.17.

18) 이 부분은 정영철, “집단주의 발전전략으로서 ‘수령제’ 정치체제,” 국사편찬연구원 편, 『현대사의 제문제』(창간호, 2004)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인용한 것이다.

19) Buzo, *op.cit.*, p.43.

20) 오늘날 미국의 탁월한 북한 연구자인 암스트롱 역시 북한을 가장 성공한 스탈린

탈린주의 체제로서의 북한과 더불어 ‘위성국가’로서의 북한이다. 이러한 위성국가론은 북한 사회가 소련에 의해 이식된 체제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구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원은 소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일명 ‘괴뢰’로 칭해지는 북한은 소련 혁명의 이식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 스탈린 체제의 복사판으로 출발했다. 이는 과거 미국에서 연구된 북한 연구들이 한결같이 ‘위성국가’로서 북한을 기술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²¹⁾ 북한을 과거 소련-동유럽과 같은 관계로 놓고 있는 것이다. ‘위성국가’로서 북한은 스탈린의 이데올로기, 발전노선, 그리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등에서 작은 스탈린체제 국가에 불과한 것이다.²²⁾

미국 학계가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규정했던 것은 북한 역사

주의 체제로 규정한다. Amstrong, Charles, K., “The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State,” Kim, Samuel S. (ed.),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New York: Palgrave, 2001).

- 21) 1960년대까지도 이러한 인식은 지배적이었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기에 펴낸 자료와 이를 재편찬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소련의 satellite로 규정되고 있다.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of a Soviet Satellite*, Report of the Department of State Research Mission to Korea,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Report No.5600, May 20, 1951(Reprinted by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22) 위성국가론은 김일성의 권력 장악이 소련에 의해 위로부터 가능했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를 보다 확장한 우스꽝스러운 주장이 바로 ‘김일성 가짜론’이다. 김일성 가짜론은 1960~1970년대 남한에서의 박정희 군사독재의 등장과 함께 반북 이데올로기의 핵심내용으로 선전되었다. 이영명·허동찬이 대표적인 논자들이다. 이영명, 『김일성열전』(서울: 신문화사, 1974); 허동찬, 『김일성평전: 허구와 실상』(서울: 북한연구소, 1987). 이에 대해, 1980년대 서대숙의 책은 김일성 가짜론을 부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서대숙은 오늘날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김일성의 항일 경력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가 만주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음을 주장했다.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8).

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한다. 1920년대의 조선공산주의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했던, 북한의 혁명1세대 지도자들은 오랜 기간을 만주 등지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통해 성장해왔고, 해방 후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미 서대숙, 이정식·스칼라피노 등은 북한과 그 지도자 김일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오랜 역사를 분석한 바 있다.²³⁾ 그리고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사상은 제3세계 민족해방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깊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여준다.²⁴⁾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 문화의 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미 북한의 문화 형성은 독자적인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논증했다.²⁵⁾

북한을 스탈린주의가 이식된 체제이자 그의 위성국가라고 평가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를 대표하는 진영 간 냉전의 기계적 적용에 따른 결과이다.²⁶⁾ 이후의 북한 역사에서 드러나듯이, 중·소 갈등과 국제 공산주의 진영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주체(Juche)’ 확립의 과정은 이들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변모시켰다. 비록 북한의 국가

23) Suh, Dae-Sook, *Ibid.*; Scalapino, Robert A. &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72). 오늘에 와서 이들의 연구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가 초기 북한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남한에서의 북한 연구는 이들의 연구성과를 넘어서고 있다.

24) 북한 혁명1세대, 특히 김일성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는 Han, Hong-koo, “Wounded Nationalism: The Minsaengdan Incident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25)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2권 1호 (1999).

26) 북한을 ‘puppet state’ or ‘satellite’로 인식해가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정용욱, “냉전 형성기 미국의 북한 인식,” 『현대사의 제문제』(창간호, 2004)를 참조할 것.

건설과 한국전쟁, 그리고 초기의 발전 과정에서 소련의 강력한 후원과 중국의 지원에 의해 가능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주체’ 확립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들에게 주체란 외세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y)’이었으며, 자기 자신이 운명의 주인(master)임을 의미했다.²⁷⁾ 나아가 ‘주체’는 반외세의 성격만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충성심으로 확장된다.²⁸⁾

주체의 확립은 곧 소련이나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로부터도, 또한 미국 등의 제국주의로부터도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체’의 출발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갖지만 직접적으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 내부의 논쟁과 중·소 간 관계,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발전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북한 체제를 소련으로부터 이식된 체제로서 ‘위성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초기의 형성과정을 절대화하는 정태적 역사관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태적 역사관은 이후, 1968년의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68년의 푸에블로호(Pueblo) 사건이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마무리한 미국의 대통령 존슨

27) 북한의 주체에 대해 셸리그 해리슨은 자립(self-reliance) 또는 독립(independence)으로 해석한다. 브루스 커밍스는 ‘조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선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2); Cumings, Bruce,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Koo, Hagen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Ithaca: Cornell Univ. Press, 1993), p.213.

28) Park, Han Sik, “The Nature and Evolution of Juche Ideology,” Park, Han S.(ed.), *North Korea: Ideology, Politics, Economy*(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96), p.12.

은 기자회견(1968년 12월 22일)에서 “북한은 소련의 압력이 먹히지 않는 나라인 것 같다(North Korea seems to be a nation out of the pressure of the U.S.S.R)”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²⁹⁾ 푸에블로호 사건 해결을 위해, 소련을 통해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던 미국 스스로가 느낀 것은 결국 북한은 소련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국가라는 점이었다.³⁰⁾ 결국 북한을 소련의 이식된 체제이자 위성국가로 바라보는 인식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위성국가’로서의 북한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로 상정하는 변형된 ‘위성국가’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³¹⁾

2) 절대권력과 세습

북한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서구의 평가는 전체주의와 전제주의가 결합된 절대권력 체제로 모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29) 존슨 대통령의 기자회견 연설문(1968년 12월 22일).

30) 당시 존슨 대통령의 도움 요청을 받은 코시긴(Kosikin) 소련 수상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승무원 송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소련 공산당 국제부에서 조선을 담당하고 있었던 트카첸코(V. Tkachenko)는 북한은 독립적으로 외교정책을 시행했다고 증언했다(『한겨레신문』, 1993년 10월 19일자).

31) 이를 정영철은 미국 및 남한이 북한을 대하는 냉전의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영철, “북핵문제의 해법과 중국,” 동북아 평화학술포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북중·한중 관계의 모색』 (2009년 12월 11일, 서울, 국회).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하나는 절대권력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우상화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권력의 세습에 두고 있다. 사실, 북한 사회에서 발견되는 우상화와 세습 현상은 외부의 관찰자의 눈에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며, 북한을 ‘예외국가(exceptional state)’ 혹은 ‘비정상국가(abnormal State)’로 보이게 한다.³²⁾

일반적으로 북한의 수령제는 개인의 절대권력 추구로 해석되며, 권력 세습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스탈린 사후의 흐루시초프(Nikita Sergeevich Khrushchyov)의 스탈린 비판의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김일성의 선택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많은 좌파 이론가들도 초기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눈길을 수령제의 성립과 권력의 세습으로 거두고 말았다.³³⁾ 민주주의라는 틀에서 북한의 수령제와 세습은 봉건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전형으로 간주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1997년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은 북한을 ‘봉건 절대왕조 체제’라고 규정하면서, 사회주의로서의 북한을 부정했다.³⁴⁾ 사실, 북한의 수령제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atem)’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교리(orthodox)에도 어긋난다. 북한의 수령제는 ‘당위의 당’을 구축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제가 결정적으로 비판받는

32) 이러한 규정의 오류와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규정의 사회과학적 엄밀성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국가성격에 대한 비교사회주의적 분석과 비판 글로서는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33) 대표적으로 호주의 저명한 일본 연구자이자, 북한에 관해서도 중요한 이론가로 꼽히는 맥코맥을 들 수 있다. 그는 1960년대까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눈길을 보냈지만, 김정일로의 승계를 지켜보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신전체주의’적 해석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그의 저작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McCormack, Gavan, *Target North Korea*(New York: Nation Books, 2004).

3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것은 바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제와 권력 세습에 대한 비판은 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령제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세습에 대한 역사와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적이다. 특히, 권력 세습에 대한 비판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의 교체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습은 혈연을 기초로 한 권력 이양이 제도화되거나, 목적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북한의 권력 세습에 대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은 결여된 채로, 그 형태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사실, 권력 세습의 형태는 세계 도처의 여러 국가에서 심지어는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드러난다.³⁵⁾ 최근만 하더라도 시리아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고, 대만, 싱가포르도 이와 유사하다. 인도의 네루-간디 가문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경우에도 가문을 배경으로 하는 유력 정치가들이 존재한다. 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권력의 세습이 반드시 동양적 가부장제의 유산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이 다른 여러 국가의 정치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³⁶⁾

35) 이에 대해서는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July 2007), pp.595~628.

36) 물론, 김일성-김정일로의 승계, 그리고 최근 김정일-김정은으로의 승계는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일정한 경쟁을 통한, 혹은 국민적 선택을 통한 승계라는 점에서는 구분된다. 세습에 대한 그 자체의 규범적 판단보다는 세습에 대한 이론적 규명과 그 역사적·구조적 분석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세습에 대한 이해는 대체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하나는 이데올로기-문화론적 관점(ideological-cultural perspective)으로서 세습에 대한 비민주성과 이것이 동양적 유교주의 때문이라는 이해이다. 북한 사회를 21세기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와 유교 왕국의 결합으로 바라보는 오공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김정일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함에도 아버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⁷⁾ 결정적인 요인은 유교주의적 가부장제인 것이다. 맥코맥 역시 아버지에서 아들로의 계승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만의 장개석-장경국을 들지만, 이들은 단지 민족주의 국가와 이데올로기를 대표했을 뿐 그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을 들고 있다.³⁸⁾ 그에게서 북한은 민주주의도, 공화국도 아닌 절대군주 체제인 것이다. 마치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의 현대판인 것이다.³⁹⁾ 이러한 유교적·가부장적 체제로서 북한의 권력 이양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양적 특수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편향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과 문화론적 설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분석의 빈약함이 놓여있다. 예대열이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듯이, 암스트롱조차도 북한을 ‘신유교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

37) Oh, Kongdan, *op.cit.*, p.9, 102. 그는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능력 부족에 대해 카리스마뿐 아니라, 대중기피증 등을 든다. 또한, 그는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reputation) 아래서 가능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를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아닌 거래형의 지도자(transactional leader)라고 본다. 이런 가정하에 그는 북한의 엘리트가 김정일에게 존경과 충성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제시하는 당근과 채찍에 의해 그를 지지한다고 본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들지 않고 있다.

38) McCormack, *op.cit.*, p.52.

39) McCormack, *Ibid.*, p.51.

고 있는 등 ‘위성국가론’, ‘소비에트화’에 대한 부정과 북한 자체의 ‘토착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유교 환원주의’적 오리엔탈리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⁴⁰⁾

북한의 세습을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은 권력중심적 관점(power centered perspective)으로서 북한의 정치 현상을 김일성의 권력 의지의 현상으로만 바라본다. 권력중심적 관점은 수령제 및 그 세습 현상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의지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즉,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의 추구의 결과인 것이다. 과거 스탈린과 모택동 사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김일성 사후의 절대권력 체제의 붕괴에 위기감을 심어주었고, 이에 따라 김일성은 사후를 보장받기 위한 절대적인 권력의 구축과 그의 아들에게로의 이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사회주의 진영에서의 후계 승계 문제가 북한에 미친 영향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정 진일보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 진영의 후계 승계 문제의 다양성, 김정일 권력 공고화 과정 및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후계 승계의 과정이 절대로 김일성 개인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오공단이나 맥코맥처럼 왕조 혹은 전제국가(Monarchy)로 규정된 북한에서 절대자의 권력 의지는 곧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인 것이다. 김일성의 후광이 김정일의 권력 장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스스로가 추구했던 권력

40) 예대열, “미국 역사학계의 북한사 인식 비판,” 『한국사연구』, 36호(2009년 8월).

41)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유격대투쟁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주저하는 김일성을 설득하여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했다. 김정일 후계자 선정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영철, 『김정일리더십연구』(서울: 선인, 2005).

장악의 과정 역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세습에 대한 비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실, 권력중심적 접근의 가장 큰 약점은 사회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둬으로써 북한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시각은 커밍스(Cummings, Bruce)에게서도 나타난다.⁴²⁾ 즉, 가족국가 혹은 가부장적 상속이 한국의 유교문화적 전통에서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순간, 김정일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지도자로서 성장해온 과정, 부자 세습에 따른 북한의 고민 등은 놓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그의 분석은 박노자가 말한 대로 미국의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는 쉽지만, 현실은 놓치게 되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⁴³⁾ 다른 의미로, 권력 승계를 둘러싼 역사와 현실은 사라지고, 그의 문화적 흔적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오희단과 해시그(Hassig, Ralph C.)가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을 마치 ‘유교적 책임’ —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아들로 이어가는 것 — 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유교주의의 절대성에 대한 전형인 것이다.⁴⁴⁾ 북한에 대한 유교문화적 영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면,⁴⁵⁾ 그에 못지

42) Cummings, Bruce, *North Korea: Another Country*(New York: New Press, 2004), ch. 4. 암스트롱 역시 이와 유사하다. Amstrong, Charles, “The Myth of North Korea,” Cummings(ed.), *Chicago Occasional Papers on Korea, Selected Papers Vol.6*,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1991).

43) 박노자, 『하얀 가면의 제국』(서울: 한겨레신문사, 2003).

44) Oh, Kongdan and Hassig, Ralph C., “North Korea Between Collapse and Reform,” *Asian Survey*, Vol.39, No.2(Mar.- Apr., 1999), p.303.

45) 북한에서 유교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즉, 유교문화의 강조 속에서 북한 사회의 구조와 역사에 대한 분석이 형식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장 북한 사회의 성격규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Paul French의 저작에서는 유교가 북한의 ‘전통적 사상의 활용’으로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정책(노동,

않게 북한의 지도부(엘리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권력 승계 및 세습이 북한의 유교문화적 특성 때문이라면, 동일한 유교문화적 특성을 간직한 남한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문화적 변수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보다 더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3) 개인숭배와 우상화

다른 한편, 외부의 관찰자들에게 북한을 가장 낮설게 만드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개인숭배의 현상이다. 북한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친 평양은 마치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과 그들의 초상화 등으로 얼룩진 도시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낮은 풍경의 이미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상징적·기능적 의미를 간과하고, 그저 북한 사회 전체를 전체주의 체제의 개인숭배로 가득 찬 사회로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우상화는 스탈린 및 모택동의 그것과 비교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3만여 개가 넘는 김일성 동상과 상징물 등은 수령제 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장 잘 실증하는 것들이다. 고병철이 북한을 방문하고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김일성 숭배 체제는 외부의 관찰자에게 북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에 틀림없

임금, 배급 등)에 대해서도 유교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유교적 상호 신뢰의 붕괴가 없다면 대규모 감원도 없을 것이라는 데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유교문화의 영향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아닐 수 없다. Paul French, *North Korea*(London & New York: Zed Books, 2005), pp.28~29.

다.⁴⁶⁾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김정일이 등장한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후반의 ‘8월 종파사건’을 통해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되면서 시작된 김일성 이상화는 ‘주체’의 확립과 궤를 같이하면서 시작되었고, 김정일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⁴⁷⁾ 이상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가 언어적 상징을 통한 이상화(김일성 호칭 등)이다. 이는 김일성을 호칭하면서 부르는 긴 수사와 김일성에게만 통용되는 호칭 문법 등이 대표적이다.⁴⁸⁾ 둘째가 공간적 상징을 통한 이상화(동상 및 전적지, 사적지 건립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평양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김일성의 동상이나, 전국 곳곳에 산재한 그와 관련된 사적지와 기념비 등이 대표적이다.⁴⁹⁾ 이러한 상징은 도처에 김일성이 존재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숨결을 느끼게 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⁵⁰⁾ 그리고

46) Hunter, Helen-Louise, *Kim Il-Song's North Korea*(Westport, Conn.; Greenwood, 1999); 헬렌-루이즈 헌터 지음, 남성욱 옮김, 『CIA 북한보고서』(서울: 한송, 2000), 49쪽에서 재인용.

47) 1950년대~1960년대에 걸친 북한의 권력투쟁과 수령제 형성에 대해서는 이태섭, 『김일성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48) 북한의 근현대 역사서인 『조선전사』에 따르면, “영광스러운 당중앙(‘party center’)의 현명한 령도 밑에 이 시기 우리말에서는 새로운 말마디와 표현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이 시기 우리말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나타내는 정중한 표현들이 수많이 생겨나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확고한 것으로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330쪽.

49) 현대의 정치 현상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대해서는 머레이 에텔만, 이성현 옮김, 『상징의 정치시대』(서울: 고려원, 1996)를 참조할 것. 북한의 상징을 시기별로 특징화하여 분석한 훌륭한 논문으로는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7).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으로서 각각의 상징물은 위치한다. 즉, 항상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⁵¹⁾

이러한 김일성 우상화는 의사-종교 국가(quasi-religious state)라는 비판을 받으며, 북한의 주민들을 우매화하는 수단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⁵²⁾ 앤드류 홀로웨이(Andrew Holloway)는 김일성 개인숭배(우상화)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도록 하며, 공통의 신념으로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삶을 따라 배우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⁵³⁾

북한의 김일성 개인숭배가 유교문화적 전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⁵⁴⁾ 특히, 브루스 커밍스는 남북한 모두

-
- 50) 동양문화 특히, 유교적 문화 전통에서 가족에서 아버지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북한의 정치 현상(김일성 수령)을 분석한 탁월한 글로는 찰스 암스트롱을 참조할 것. Amstrong, Charles(1991), *op.cit.*.
 - 51) 김일성의 동상은 평양의 거대한 동상 이외에도 각 지역마다 세워져있다. 동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김일성의 살아있는 또 다른 존재인 것이다. 고병철은 그의 북한 방문기에서 “김일성은 문자 그대로 도처에 존재했다”고 적고 있다. Hunter, 위의 책, 49쪽에서 재인용.
 - 52) 미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는 크기에 따른 종교의 순위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10위로 올려놓고 있다. 이 사이트에 의하면 북한의 주체사상은 1.9millions의 신자를 가진 종교인 것이다([Http://www.adherents.com](http://www.adherents.com))
 - 53) Holloway, Andrew, ‘A Year In Pyonyang’(http://www.aidanfc.net/a_year_in_pyonyang_3.htm, 2004년 10월 25일 검색). 그가 피상적 관찰로 주장한 두 가지 목적은 북한이 마주했던 현실의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서 지도부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다. 즉, 그들은 북한에서 점차 대두하기 시작한 개인주의에 대응으로서 집단주의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사회의 완성된 인간으로서 수령을 상정했던 것이며, 이의 정치적 표현으로서 수령제 정치체제를 형성했던 것이다.
 - 54) 브루스 커밍스, 암스트롱 등은 북한의 우상화의 문제를 동양적 유교 전통에서 기원을 찾는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북한의 근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문화론적 해석의 함정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셀

에게 지도자나 경전에 대한 숭배 전통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전통 못지않게 사회주의 건설에서 나섰던 현실적 문제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의 주체 확립에 대한 요구는 맑스-레닌주의의 교조화된 도그마에 대한 저항과 수정주의적 경향에 대한 저항을 모두 포함한다.⁵⁶⁾ 이 과정에서 북한은 지도자란 인민 다수에게 이익을 주게 될 변화에 대한 대중적 욕망의 궁극적 화신(化身)이며 또 그러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들은 개인숭배로서가 아니라 인격화된 지도력으로서 김일성의 지도를 상징했던 것이다.⁵⁷⁾ 주체 확립의 요구가 강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강화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화-우상화 작업이 유교문화적 전통과의 친화성을 가지면서 큰 반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김일성 개인에 대한 인격화된 지도력의 절대화는 그가 가진 역사적 카리스마와 해방 이후 보여주었던 대중성, 그리고 오랜 종파주의적 고통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지도력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극단적 숭배 현상은 그 역기능의 부정적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맥코맥에 따르면,

리그 해리슨 역시 북한의 정치체제를 서방의 정치학으로 분류하자면, 커밍스의 조합주의적 유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Harrison, Sallig, *op.cit.*.

- 55) Cumings, Bruce,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 of Communism*(March-April, 1974), p.34.
- 56) 북한은 주체사상의 출발을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반대와 투쟁에서 찾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 57) 이태섭, 위의 책.
- 58) 시아누크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면서도, 지도자들이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인상을 가졌다고 슬회하고 있다. 노로돔 시아누크, 한영

북한의 개인숭배는 ‘주체’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대중의 창조적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1970년대 북한의 정치 현상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남근우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종파주의’가 우심해져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살인적인 경쟁을 하고, 종파에 대한 충성심이 당에 대한 충성심보다 우세해지며, 투쟁에의 몰입은 종파의 성원으로 하여금 사회문제에는 더욱 관심을 적게 가지도록 하며, 초창기부터 한국전쟁 말기까지 그들의 정치체제가 직면했던 외부적 위협에 대해 장님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심각한 종파주의가 사회 속에 침투하고 북한이 계속된 정치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의 사회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강력한 지도자가 출현하여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가적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⁶⁰⁾

결국 북한이 처했던 강력한 지도력의 요구와 주체 확립의 요구 그리고 문화적 전통의 친화력에 의해 김일성 개인숭배는 이해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개인숭배는 1967년의 ‘수령제 정치체제’의 성립을 계기로 극단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말았고, 김정일은 이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개인숭배의 영향력은 그 가치의 궁·부

탁 율김, 『카리스마와 리더십』(서울: 디자인하우스, 1990).

59) McCormack, Gavan, “North Korea: Kimilsungism - Path to Socialism,”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13, No.4(1981), p.54.

60) Nam, Koon Woo, *The North Korean Communist Leadership(1945~1965)*(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4), pp.141~142; 앨런 브룬·재키스 허쉬, 김해성 율김, 『사회주의 북한』(서울: 지평, 1988), 282쪽에서 재인용.

정을 떠나 1994년 김일성의 죽음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보여준 놀랄 만한 슬픔에서 알 수 있듯이 진실한 것이었음은 명백하다.⁶¹⁾

위에서 열거한 북한적 현상은 북한을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오늘날 북한과 같은 일인의 지배자와 일원화된 사상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는 찾기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사피로(Shapiro)가 말하는 전체주의에 딱 들어맞는다. 또한 오헨런(O'hanlon)이 지적하듯이, ‘은둔의 왕국’으로서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마오쩌둥의 중국과 닮았다는 것도 사실이다.⁶²⁾ 또한, 유교문화적 전통과 결합된 가부장제 국가이자, 전체주의의 국가라는 설명도 현상을 일정부분 설명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현실에 기대어 이러한 개념들과 이론적 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데이비드 강(David Kang)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론이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4. 되돌아오는 과거: 이미지의 재생산

오늘날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는 과거에 비해 한층 더 다양해졌다. 정치·경제·군사에 국한된 연구의 범위를 뛰어넘어 그들의 문화와 식량 사정에 따른 사회적 변화, 여행기를 통한 북한 사회에 대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⁶³⁾ 그러나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성과물들이 현

61) Hunter, 위의 책, p.257. 그녀에 따르면, 탈북자들도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신봉의 태도를 여전히 견지한다고 한다. 같은 책, p.52.

62) O'Hanlon, Michael E. & Mocizuki, Mike M.,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New York: McGraw-Hill, 2003), Ch.1.

63) 북한을 여행한 후기 형식을 빌어 북한을 표현한 글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안이 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⁶⁴⁾ 이러한 경향은 남한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북한 사회에 대한 진지한 구조 분석의 소홀함이 정책 지향적 연구의 과잉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⁶⁵⁾ 북한에 대한 구조 분석보다는 ‘공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공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구조 분석에 기초한 공학 연구가 아닌 공학을 위한 북한 ‘이미지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 만들기’의 많은 부분은 정태적 역사관에 의해 지속되고 있고, 탈북자들의 선택된 증언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굶주림, 세뇌, 탈북, 강압, 적대감 등이며, 이는 적절하게 안배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탈북자들의 특정한 증언에 의해 강화되며, 기정사실화된다.⁶⁶⁾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동화 속 이야기’로 치부되며, 끊임없이 ‘동양의 마녀’로서 되돌아오게 된다.⁶⁷⁾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침체에 대한 논의에서 ‘동양의 마녀’로서 북한 정부는 정점에 위치하게 된다. 즉, 북한 경제 침체의 모든 근본 원인은 바로 국가(state) 그

있다. 앞서 예를 든, 홀로웨이의 글이나 아드리안 부조의 책, 그리고 Martin, Bradley M., *Under the loving care of the fatherly leader*(New York: Thomas Dunne Books, 2006) 등을 들 수 있다.

- 64) 미국의 아마존(Amazon)을 검색해보라. 많은 북한 저서들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핵, 미사일, 그리고 식량난과 경제 개혁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다.
- 65) 이에 대해서는 정영철, 위의 글(2007).
- 66) 이에 대해 Tim Beal은 탈북자 증언이 많은 부분에서 거짓에 기초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비판하고 있다. Tim Beal, *North Korea: The Struggle Against American Power*(London & Ann Arbor: Pluto Press, 2005).
- 67) 헤이젤 스미스는 서구에서 북한 연구가 ‘동양의 마녀’로서 북한에 기초하고 있으며, 결국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결여한 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Hagel Smith, “North Korea as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Social Science as Fairy Tale,” *Asia Policy*, No.5(January 2008), pp.197~203.

자체로 향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 침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만능의 해결사 (deus ex machina)’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텝판 헤거드(Stephan Haggard)와 마커스 놀란드(Marcus Noland)의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이다. 즉, 그들에게 북한 식량난은 결국 정부의 문제이며, 그들이 바라보는 정부는 구체적인 ‘북한’이라는 정부보다는 공산주의의 국가로서의 ‘북한’이라는 반시장적, 강압적 존재로서 규정된다.⁶⁸⁾ 마커스 놀란드의 또 다른 글에서도 이는 그대로 반복된다. 그는 북한이 무역 중심의, 그리고 개혁중심의 전략(trade- and reform centered strategies)만이 문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전략은 결국 북한의 체제 개혁(system reform)이며, 나아가서 전환(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⁶⁹⁾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얼마든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에서 묘사되는 북한의 구체적인 정책이 비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북한’이라는 원초적 범 죄자로서 북한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이다.⁷⁰⁾

68) Stephan Haggard &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이 책에서 저자들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생산과 분배 등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 정부에게 근원적인 책임을 돌리고 그 해결책으로서 개혁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개혁은 결국 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서평과 저자들의 대답은 *Asia Policy*, No.5(January 2008)를 참조할 것.

69) Marcus Noland, Sherman Robinson and Tao Wang, “Famine in North Korea: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49, No.4(Jul. 2001), pp.741 ~767.

70) 따라서 북한의 체제 전환이 없이는 결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북한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실패에 대한 목적론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한편,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과거의 이미지가 재생되어 등장한다. 1990년대를 묘사했던 북한이 21세기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⁷¹⁾ 이러한 모습은 오공단과 해시그의 짧은 글 속에서도 발견된다. 전체주의 사회의 전형과 일종의 ‘도둑정치’가 지배적인 사회인 것이다.⁷²⁾ 이러한 ‘되돌아온 과거’는 잘못된 북한 이해를 불러오고,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미국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상당한 원인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미 데이비드 강은 과거 ‘만능의 해결사’로서 김일성을 불러오는 것이 잘못된 북한 인식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신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⁷³⁾ 특히, 그는 북한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이론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1961년의 사태(4.19혁명 상황을 지칭하는 듯)와 북한의 반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⁴⁾ 데이비드 강의 분석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대응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날 미국에서도 탁월한 연구 업적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

71) Young Howard의 Paul French의 저작에 대한 서평은 북한 이미지가 어떻게 고착되어 있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이미 죽었으며, 북한의 ‘공산화 통일’에 대한 집념으로 인해 반제국주의적 성향은 변치 않을 것으로 단언한다. Young Howard,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64, No.4(Nov. 2005), pp.1034~1035.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남남갈등의 한쪽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답아있다.

72) Oh, Kongdan and Hassig, Ralph C., “North Korea: The Hardest Nut,” *Foreign policy*, No.139(Nov.-Dec., 2003), pp.44~47.

73) Kang, David C., “Rethinking North Korea,” *Asian Survey*, Vol.35, No.3(Mar. 1995), pp.253~267. 이 글에서 데이비드 강은 북한의 호전성, 팽창성,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문제 등 5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74) David Kang, *Ibid.*, p.258.

방문을 통한 관찰과 현안에 대한 훌륭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북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에 기초하여 사실을 해석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⁷⁵⁾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서 유교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등 이 모든 개념들은 오늘날의 북한을 일부분 설명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와다 하루키가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북한 관련 연구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의 지나친 상업적 관심이 결국 일본의 북한 연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흥미 위주의 보도만이 난무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⁷⁶⁾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북한 이미지’의 재생산과 상업적 포장은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04년 10월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팀 아메리카>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 다름 아니며, 북한의 사회주의는 동화속의 이야기(tale)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⁷⁷⁾ 북한 인식 및 ‘북한 이미지’의 냉전적 재생산인 것이다.

75) 뉴질랜드 학자인 Team Beal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씌우고 있는 인권, 위조지폐, 테러, 마약, 군사적 문제 등의 이미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과장되거나, 의도적인 목적에 의해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Team Beal, *op.cit.*.

76) 이에 대해서는 와다 하루키, 다카사키 소지, 이윤정 옮김, 『북한을 읽는다』(서울: 녹두, 2003). 이 책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북한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77) 영화 <팀 아메리카: 세계경찰(Ream America: World police)>는 미국 파라마운트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로, 세계 평화를 지키는 미국의 비밀경찰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WMD의 핵심 인물로 김정일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5. 결론-냉전의 해체와 재형성

미국의 북한 연구에 대한 평가가 쉽지만은 않다. 미국인에게 북한은 단지 연구 대상의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연구 대상을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미국 등 서방에서의 북한 연구와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 역시 그러한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⁷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가 여전히 ‘냉전의 덩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에서의 북한 인식 역시 시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일부의 학자들에 의해 북한 연구의 과학적 이론화의 시도가 있었고 또한 많은 성과를 내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의 북한 인식은 ‘냉전의 덩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사회를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는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실증에 기초하기 보다는 유교주의, 전체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적 선입견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과학’적 분석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술적인 분석에 앞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북한 사회에 대한 ‘이미지 만들기’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악의 축’이나 ‘폭정의 전

78)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미국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역사관 등에 기초하여 그들이 어떻게 타자를 인식하는지의 문제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초한 북한 연구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지 학술적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북한 인식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초기지' 그리고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매개로 한 '악마 만들기'가 학술적 논의를 대체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까지도 크지 않았다. 또한, 접근 자체도 쉽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미국 내에서 중국 연구 및 한반도 연구의 선구자 중의 한사람으로 평가받는 마크 셸던 교수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초기 미국에서의 중국 연구는 술한 오해와 자료 수집의 어려움, 주변의 따카운 시선을 감내하면서 발전했다고 한다.⁷⁹⁾ 지금 미국에서의 북한 연구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보인다.

냉전의 최전선에 마주했던 남과 북이 탈냉전의 상호 인식을 발전시키고 있다면, 미국의 북한 인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아직 마감되지 않고 있듯이, 서로를 향한 적대적 인식의 시대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적 인식은 곧 적대적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보여주었던 대북 강경책의 이면에 소위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악마 만들기'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을 둘러싼 권력과 지식의 결합인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의 '냉전의 해체' 현상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냉전이 재형성되고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을 둘러싼 냉전 시대의 북한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 접수: 2월 20일 / ■ 채택: 3월 26일

79) 2004년 마크 셸던(Mark Sheldon) 교수와 필자의 대화.

참고문헌

1. 한글문헌

- 구갑우, “북한 인식의 정치적 회로: 국제관계학의 오리엔탈리즘 비판,” 『정치비평』, 2003년 하반기호.
- 글린 포드, 윤동구 옮김, 『벼랑 끝에 선 북한』(서울: 한얼미디어, 2009).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7』(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 헬렌-루이즈 헌터 지음, 남성욱 옮김, 『CIA 북한보고서』(서울: 한송, 2000).
- 노로돔 시아누크, 한영탁 옮김, 『카리스마와 리더십』(서울: 디자인하우스, 1990).
- 머레이 에델만, 이성헌 옮김, 『상징의 정치시대』(서울: 고려원, 1996).
- 박노자, 『하얀 가면의 제국』(서울: 한겨레신문사, 2003).
- 안드레아 크라체 외, 『서구 맑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서울: 중원문화, 1990).
- 앨런 브룬·재퀴스 허쉬, 김해성 옮김, 『사회주의 북한』(서울: 지평, 1988).
- 와다 하루끼, 다카사키 소지, 이윤정 옮김, 『북한을 읽는다』(서울: 녹두, 2003).
- 예대열, “미국 역사학계의 북한사 인식 비판,” 『한국사연구』, 36호(2009년 8월).
- 이영명, 『김일성열전』(서울: 신문화사, 1974).
- 이태섭, 『김일성리더십 연구』(서울: 들녘, 2001).
- 정영철, “집단주의 발전전략으로서 ‘수령제’ 정치체제,” 국사편찬연구원 편, 『현대사의 제문제』(창간호, 2004).
- _____, 『김정일 리더십연구』(서울: 선인, 2005).
- _____, “북한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2007년 겨울호.
- _____, “북핵문제의 해법과 중국,” 동북아평화학술포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북중·한중 관계의 모색』(2009년 12월 11일, 서울, 국회).
- 정용욱, “냉전 형성기 미국의 북한 인식,” 『현대사의 제문제』(창간호, 2004).
- 조은희,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07).
- 찰스 암스트롱, “북한 문화의 형성: 1945~1950,” 『현대북한연구』, 2권 1호(1999).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외,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팀 와이너 지음, 이경식 옮김, 『젯더미의 유산』(서울: 랜덤하우스, 2008).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허동찬, 『김일성평전: 허구와 실상』(서울: 북한연구소, 1987).

『한겨레신문』, 1993년 10월 19일자.

『조선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2. 외국문헌

Armstrong, Charles, “The Myth of North Korea,” Cumings (ed.), *Chicago Occasional Papers on Korea*, Selected Papers Vol.6, The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1991.

_____, “The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State,” Kim, Samuel S. (ed.),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Post-Cold War Era* (New York: Palgrave, 2001).

_____, “An Interview with Gari Ledyard,”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6, No.1(2003).

Buzo, Adrian, *The Guerilla Dynasty*(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9).

Cumings, Bruce, “Kim’s Korean Communism,” *Problem of Communism* (March-April, 1974).

_____,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Koo, Hagen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Ithaca: Cornell Univ. Press, 1993).

_____, *North Korea: Another Country*(New York: New Press, 2004).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of a Soviet Satellite*, Report of the Department of State Research Mission to Korea,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Report No.5600, May 20, 1951(Reprinted by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Eberstadt, Nicholas & Banister, *Judith, Population of North Korea*(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Eberstadt, “The Old North,” *The World & I*, Vol.15(2000).

Gleason, Abbott, *Totalitarianism: The Inner History of the Cold War*(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an, Hong-koo, 'Wounded Nationalism: The Minsaengdan Incident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 Harrison, Selig S., *Korean Endgame*(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2).
- Holloway, Andrew, "A Year In Pyongyang"
(http://www.aidanfc.net/a_year_in_pyongyang_3.htm).
-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59(July 2007).
- J. E. Hoare & Susan Parse, *North Korea in the 21st Century*(Folkestone, UK: Global Oriental Ltd., 2005).
- Johnson, Chalmers, *Blow Back*(New York, NY: Henry Holt & Co., 2000).
- Kang, David C., "Rethinking North Korea," *Asian Survey* Vol.35, No.3(Mar. 1995).
- Marcus Noland, Sherman Robinson and Tao Wang, "Famine in North Korea: Causes and Cur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49, No.4(Jul. 2001).
- Martin, Bradley M., *Under the loving care of the fatherly leader*(New York: Thomas Dunne Books, 2006).
- McCormack, Gavan, "North Korea: Kimilsungism - Path to Socialism,"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13, No.4(1981).
- _____, "Kim's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March/April 1993).
- _____, *Target North Korea*(New York: Nation Books, 2004).
- Oh, Kongdan and Hassig, Ralph C., "North Korea Between Collapse and Reform," *Asian Survey*, Vol.39, No.2(Mar.-Apr., 1999).
- _____,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Washington D.C: Brookings, 2002).
- _____, "North Korea: The Hardest Nut," *Foreign Policy*, No.139(Nov.-Dec., 2003).
- O'Hanlon, Michael E. & Moczuki, Mike M.,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New York: McGraw-Hill, 2003).
- Park, Han Sik, "The Nature and Evolution of Juche Ideology," Park, Han S.(ed.), *North Korea: Ideology, Politics, Economy*(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1996).
- Paige, Glenn D. & Lee, Dong Jun, "The Post-War Politics of Communist Korea," *The China Quarterly*, No.14(April-June, 1963).
- Paul French, *North Korea*(London & New York: Zed Books, 2005).
- Scalapino, Robert A. &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Berkeley: Univ. of California, 1972).
- Smith, Hazel, "Bad, mad, sad and rational actor? Why the 'secrutzi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76, 1(2002).
- Smith, Hagel, "North Korea as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Social Science as Fairy Tale," *Asia Policy*, No.5(January 2008).
- Stephan Haggard &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8).
- Tim Beal, *North Korea: The Struggle Against American Power*(London & Ann Arbor: Pluto Press, 2005).
- Young Howard,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64, No.4(Nov. 2005).
- U.S Dept. of Stat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04* released on Sept. 15, 2004.

North Korean Studies in America: Reproduction of the cold war images

Chung, Young Chul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gang University)

North Korean studies in the U.S. don't break away the snare of the cold war. Through the 'axis of evil' by Bush Administration and the image of Kim JongIl expressed ridiculously in the media, we can recognize that North Korea has been embodied as the enemy against the U.S. North Korea is expressed as the three images: satellite state(puppet state), autocrat state, hereditary state(cult of personality). And to analyze the above images, they use the theoretical frame as like totalitarianism, cofucianism and paternalism. North Korean studies are on the side of hostility, hatred and also depended on the second materials and over-theoretical frame. As a result, the study on the North Korea don't breal away from the above images.

Although the researches on the North Korea in the U.S. has been developed and vried such as the politics, economy, social-culture and

military, a large part of the researches reproduce the cold war images, and then have a big impact on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reflects that the cold wa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s not dismantled, and means the reiterate the ‘reproduction of the cold war.’

Keywords: The Snares of the Cold War, Totalitarianism, Satellite State, Hereditary Succession, Cult of Personality